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내실화 방향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관계부처 합동, 2013: 142)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2013년 7월 18일에 확정·발표하였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전문대학 육성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사업

이 방안은 5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4년 초에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추구를 위해 필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대학 특성화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본 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의 내실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전문대학 특성화의 개념과 필요성

1. 전문대학 특성화의 개념

전문대학의 특성화 개념은 정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해 왔다. 우선,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5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영역별 특성화(수도권, 비수도권)’ 사업과 비정규 교육과정 포함의 ‘주문식 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운영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 목적은 ‘현장 기술(실무) 인력 양성’이었으며, 운영 방향은 ① ‘선택과 집중’의 원리 적용, ②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안정적인 특성화 추진을 위한 다년도 위주의 지원 등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1). 그러나 전문대학의 특성화에 대한 개념은 공식적으로 규정화되지 않았다.

그 후 MB정부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에서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에 발표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효과적인 산학협력 교육 체제와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대학 자체의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0: 28)”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 분야별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교육부, 2013a: 9)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의 특성화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3b: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에서는 다음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문대학 체제의 측면에서 특성화는 당해 대학의 강점 분야를 선택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중시한다. 둘째, 특성화 모형은 계열·학과 체제의 특성화 모형과 프로그램 특성화 모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셋째, 최근의 정부의 특성화 정책에서는 대학의 구조 개혁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 둘째, 특성화 모형의 구분(계열·학과 체제 특성화/프로그램 특성화), 셋째, 대학의 구조 개혁과의 연계

2. 전문대학 특성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고등교육기관이 특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제기되어 왔다(이현청, 2006: 15; 조우현, 2006: 105).

고등교육기관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확대, 둘째, 생존 전략 확보, 셋째, 지역사회 발전 지원 기능 확대, 넷째,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차별성 확보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 특성화가 필요하다. 엘리트 교육 단계에서 보편화 교육 단계에 접어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주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계열·학과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존 전략 확보를 위해 특성화가 필요하다. 출생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은 생존 전략의 하나로 강점이 있는 계열·학과를 선택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수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사회 발전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정치 체제의 전환 시기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로서 산업 혁신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계열·학과를 특성화 시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도 특성화가 필요하다. 차별성이 별로 없는 유사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비슷한 학과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유사성을 극복하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학과의 특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태화 외(2006: 143-144)는 전문대학의 특성화에 초점을 두어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과 질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계열·학과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당수의 4년제 대학교들이 산업 인력 개발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전문대학은 이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학과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학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부응하면서 ‘지역 기반 대학(community-based college)’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계열·학과의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 인구 감소에 따른 고졸 입학 자원의 감소가 4년제 대학교에 비해 전문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졸자 중심의 중국 교육 체제를 성인 중심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하여 성인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교육 체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간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전문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대학은 특정 계열·학과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 특성화의 필요성 첫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과 질이 크게 변화, 둘째, 4년제 대학교의 산업인력개발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대학의 차별화 된 정체성 확보 필요, 셋째,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부응하여 지역 기반 대학으로 발전, 넷째, 성인 중심 평생 교육 체제로의 전환, 다섯째,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간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여섯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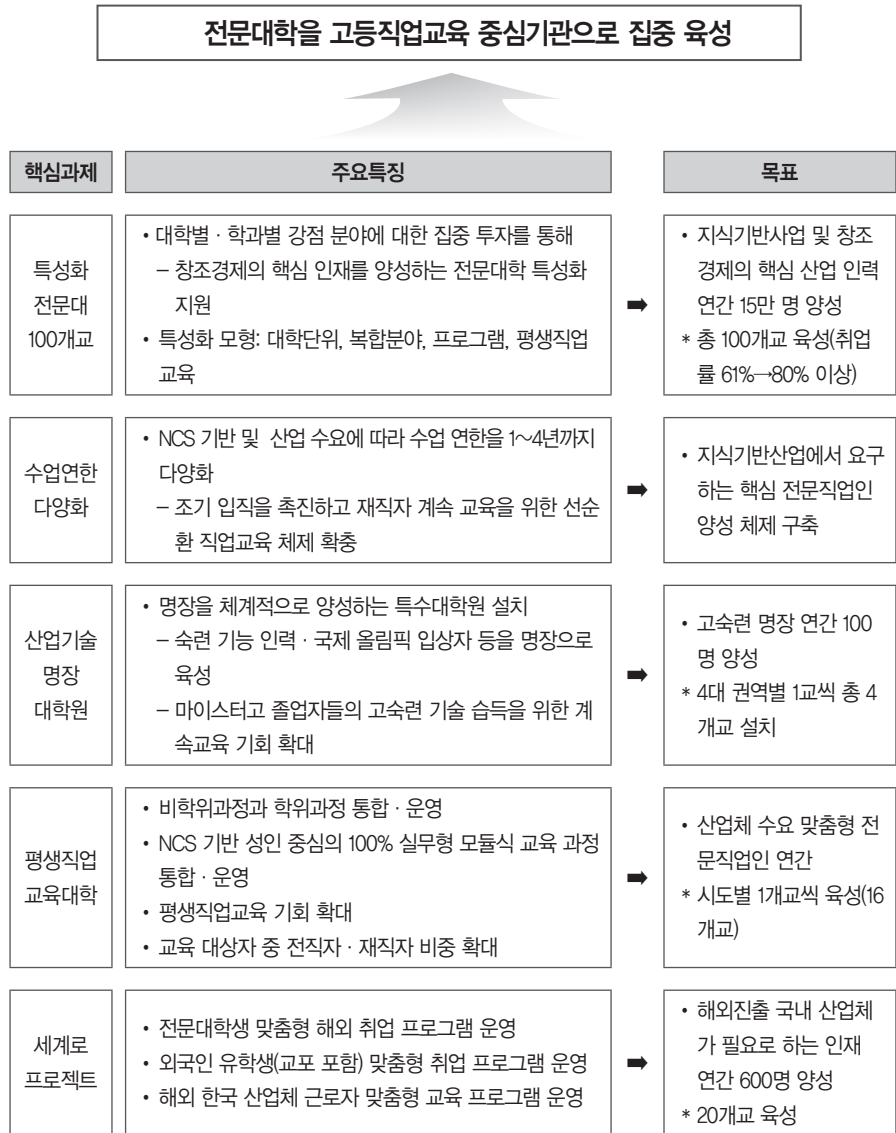
전문대학 특성화의 필요성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전문대학 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정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방안과 의의

1. 전문대학 특성화 정책의 개요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71대 국정과제인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관계부처 합동, 2013: 142)에 따라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2013년 7월 18일에 확정·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2017년까지 국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핵심 전문직업인을 연간 15만 명씩 집중적으로 양성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과제별 주요 특징과 내용



자료: 교육부(2013a), 8쪽.

한편, 전문대학 육성 방안 내에서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관련을 맺는 핵심과제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 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특성화 대학 모형별 주

요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에서의 특성화 대학 모형별 특징 비교

구분	대학 단위 특성화	복합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특성화 방 향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단일산업)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새로운 형태의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특성화 단 위	대학 전체	대학 전체	대학 전체 또는 일부 (특정 프로그램 단위)	대학 전체 (비학위·학위과정 통합 운영)
신 청 자 격	단일 주력 계열 (편제 정원) 70% 이상	2개 주력 계열 (편제 정원) 70% 이상	모든 계열	모든 계열
육 성 목 표	20교 내외	44교 내외	20교 내외	16교 내외
지 원 기 간	5년(2+3) 단위로 지원 (연차 평가를 통해 성과 관리)			
비 고	신청 자격은 2015년도 기준 주력 계열 편제 정원 70% 이상인 전문대학 (단, 2014년도는 대학의 자체 구조 개혁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60% 이상도 신청 가능) ※ 주력 계열: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강점 계열(공학,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 편제 정원: 전문대학의 신입생 입학 정원에 수업 연한을 곱한 총 학생 수			

자료: 교육부(2013a), 13쪽.

박근혜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사업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3a: 9-11). 첫째, 그간 장기간에 걸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별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성화 이외 분야에 대한 재구조화 미흡으로 전문대학은 백화점식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의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둘째, 인력 수급 전망 및 지역 산업에 기반한 특성화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전문대학 졸업생이 급감하는 동시에 전문대학을 통한 신규 인력 공급도 감소할 전망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이를 고려하여 계열·학과의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의 인력 수급 분석 결과를 근거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특정 계열의 과잉 인력 양성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현 정부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첫째, 장기간에 걸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전문대학별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 둘째, 인력 수급 전망 및 지역 산업에 기반한 특성화 추진이 필요

현 정부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셋째,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의 재설계, 넷째,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발전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구조혁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획일적 포물리 지표 적용 방식으로 인해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조경제 내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시장을 발굴하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운영 방향은 ① 대학 강점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에 필요한 역량 있는 핵심 직업 인재의 양성·공급,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산업체와 전문대학 배출 인력 간 불일치(미스매치) 문제 해소와 이를 통한 직무 수행 완성도 및 현장성이 높은 직업 인재 양성, ③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진·출입이 자유로운 현장 중심 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④ 학령 인구의 급감에 따른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와 연계한 대학 내부의 자율적 구조 개혁 유도, ⑤ 우수 전문직업인 육성을 통한 전문대학 취업률 향상(61% → 80% 이상) 등으로 설정되었다.

2. 전문대학 특성화 정책의 의의와 기대 성과

우선, 전문대학 육성 방안 전반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최초로 학제(School System) 측면에서 고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계열(Vocational Education Track)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와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 확보와 직업교육 전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수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의 재정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의 발전과 조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이다. 넷째,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육성을 통해 전문대학이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 기능·기술인의 계속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다섯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전문대학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정태화 외, 2013: 73).

한편, 정부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2013a: 15). 첫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으로 국가·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다(매년 약 15만 명씩). 둘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 경로를 마련하여 학벌사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적 구조 혁신 추진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육 여건(교수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실험실습실 개선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사 운영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별 자율적 구조개혁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첫째, 국가·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집중 양성 가능. 둘째, 직업교육 강화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 셋째, 체질개선 및 자율적 구조 혁신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및 대학별 자율 구조 개혁 동시 유도

Ⅲ.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한 내실화 방향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실화에 초점을 두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3년도에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정책 진단 및 보완 대책' 연구(정태화 외, 2013: 149-162)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하여야 할 정책 방안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대학 단위 특성화 모형'과 '복합 분야 특성화 모형'에 제한¹⁾하여 내실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노동시장과 연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방안 추진

노동시장과 연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방안: 첫째,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추진 필요, 둘째,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

첫째,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 단위 특성화 모델과 복합 분야 특성화 모델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산업별 신규 인력 공급 전망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의 선택과 집중'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학과(전공)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 육성 방안과 동시에 추진 예정인 전문대학 정원 조정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한 전문대학의 학과(전공)를 중심으로 정원 축소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NCS 확대 정책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의 모든 전공 교육 과정에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들도 NCS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DB에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개발한 'NCS 기반 교육과정'을 탑재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자유롭게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에서는 이들 모형 이외에 '프로그램 특성화 모형'과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셋째,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전문대졸 인력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내부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과 승진상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NCS 정책과 연계하여 능력평가제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관리정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과 연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방안: 셋째,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전문대졸 인력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

2. 유관 부처 관련 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박근혜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가 정책의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최근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유관 부처 정책 내용

<p>[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관계부처 합동(2013.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대학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교육부) ○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대학 내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생 창업 역량) 대학 학사제도 정비 등 대학생의 창업 역량 배양 - (대학 기술사업화 강화) 산학협력 중개 센터를 신설하여 대학 보유-기업 수요 희망기술의 중개·계약·사후관리 전담 및 DB 구축(2015~, 교육부) <p>[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3. 6.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노동시장 조기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중심사회 구축, 취업 기회 확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NCS 구축(2013년~),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 강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2013. 9. 5.)]

-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콘텐츠 개발, 창업 강좌 확대, 창업 응·복합 전공제, 학위과정 개설,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 창업교육 전담 교원의 전문성 강화: 창업 교원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관리 체제 마련
-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 학생 창업 도전 환경 조성: 실전 창업 동아리 지원, 연합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경진대회 재편, 전담 조직 설치, 창업교육 연구 센터 설립
 - 학생 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창업 도전 자금 확대, 창업기업 기술 지원, 교수 연구실 창업 지원, 창업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창업 시설 제공
 -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재정지원 평가 반영, 대학정보 공시 개선, 창업 우수 대학 선정
- 지방 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 지방 대학의 창업 역량 강화: 지역 창업 역량 강화, 혁신 주체 간 협업 강화, 학교기업의 창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국내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인턴십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방안: 고용노동부(2013. 8. 30.)]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훈련기관 활용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지역 우수 훈련기관 등
 - 아울러, 지역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와 지역의 인력 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 방안 강구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타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의 개발과 운영 활동도 전개되어야 함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표 2>를 통해 확인한 유관 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관계자 간의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조정위원회(예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연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정 및 협력 활동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 제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의 개발과 운영 활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전문대학 특성화의 성과 평가 틀 개발과 운영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로 향후 5년간 추진 되는 장기 정책이다. 그간 정부는 이 과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지만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태화 외(2009: 249)가 제시한 틀을 참조하여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성과 평가 틀을 예시하면 <표 3>과 같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야 함

표 3.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 성과 평가 틀(예시)

영역	성과 평가 준거	성과 평가 준거 내용
방향 및 목표	① 미래 지향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할 만큼 미래 지향적이었는가?
	② 실현 가능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였는가?
기반 체제	③ 다양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는가?
	④ 특성화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직업 인력 양성을 위해 체제,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추구하였는가?
	⑤ 연계성 (수평/수직)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유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간 수직적 연계 강화와 산업체·학교·정부·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수평적 연계 강화를 추구하였는가?
운영 체제	⑥ 유연성 /자율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산업계의 수요에 즉시 부합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및 교육 과정 운영 체제의 유연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였는가?
	⑦ 현장 기반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은 산업 현장에 밀착하여 학습-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 운영의 현장 기반화를 추구하였는가?
행·재정적 지원	⑧ 지원 확보성	· 정부와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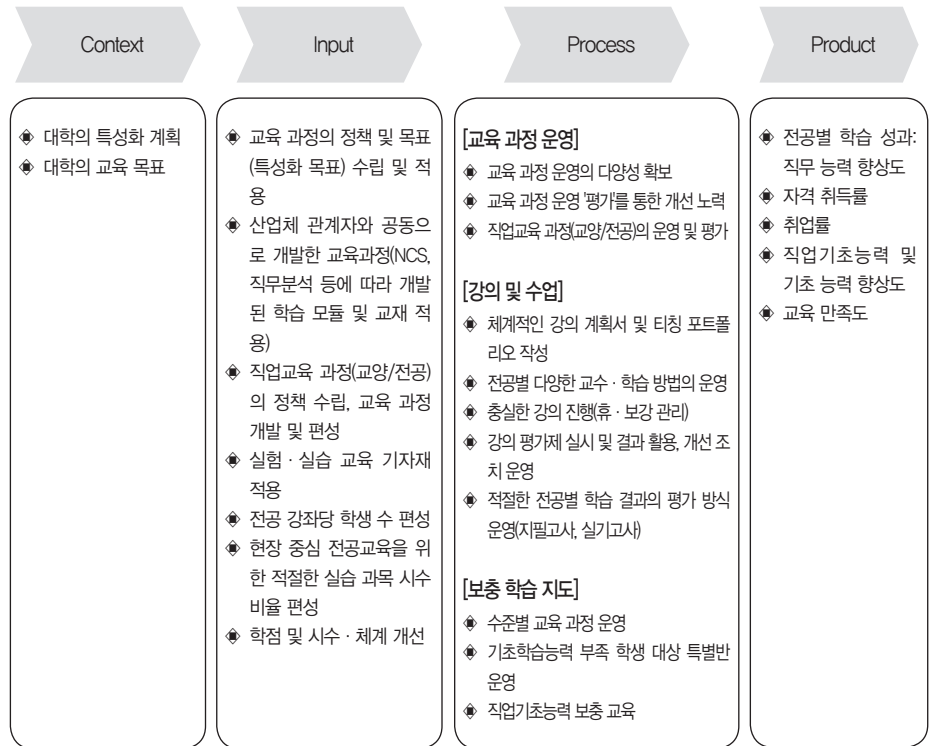
위에서 제안한 틀은 예시적인 틀로서, 향후에 더욱 정교한 틀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여 성과 평가 준거를 구성하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그리고 이들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측정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4. 사업 참여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운영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해야 함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전문대학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의 흐름에 따라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관련 지표를 ‘CIPP(Context-Input-Process-Product) 모형’에 따라 예시적으로 제안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CIPP 모형을 활용한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평가지표(예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위의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참조하되, 당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_____ (2013. 6. 3.). 보도자료-‘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_____ (2013. 8.).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13a. 7. 18.). 전문대학 육성 방안.
- _____ (2013b. 10.). 지방대학 육성 방안.
-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기업청(2013. 9. 5.).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2013~2017)-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 교육인적자원부(2005. 1). 2005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계획.
- 노동부(2013. 8. 30.). 보도자료-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체계 만든다.
- 이현청(2006). 대학평가론. 문음사.
- 정태화 외(2006).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9). 직업교육 혁신 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3).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정책 진단 및 보완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우현(2006).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랜덤하우스중앙.
- 한국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